

신안 1024개 바람개비 대한민국 에너지 미래를 바꾼다



전남이 대한민국 신재생에너지 메카로 도약에 나선다. 오는 2030년까지 사업비 48조5000억원을 투입해 신안 앞바다에 조성을 추진 중인 8.2기가와트(GW) 규모의 세계 최대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앞세워 미래 핵심 산업으로 떠오른 신재생에너지산업 주도권 잡기에 나선다. 향후 10년간 사업추진 과정에서 400개 이상 관련 기업 유치·육성, 장단기 12만명 이상의 고용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하고 대한민국을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 반열에 올리겠다는 야심찬 계획도 세웠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형 상생일자리사업으로 추진되는 8.2GW(원전 8기 규모) 신안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은 민선 7기 전남도의 최대 역점 사업이다. 전남의 풍부한 해상풍력 자원과 세계 정상급 조선·중공업·풍력발전 기술을 바탕으로 단일 사업 단지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월 5일 신안 임자2대교에서 열린 전남형 상생일자리 협약 선포식에 참석해 "정부는 2030년까지 5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 하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작년까지 5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 준비 기간을 단축하고, 특별법을 제정하여 입지 발굴부터 인허가까지 일괄 지원하겠다"고 힘을 실었다.

사업 대상지는 신안군 임자도 30km 해상이다. 해상 풍력 발전단지 조성, 풍력발전기 생산·조립 단지 구축, 지원부두 및 배후단지 조성, 송전선로 구축 등을 사업 내용으로 한다. 목표는 해상풍력 물류의 중심지가 되고, 영암과 신안 등에는 대규모 해상풍력설비 제조단지가 들어서게 된다. 사업은 송전선로 및 기반시설 구축 상황에 따라 3단계로 추진된다. 기반시설 구축 단계에서는 해상에서 생산한 전기를 육상으로 가져오는 송전선로를 구축하고 목표사항만 해상풍력 지원부두 배후단지를 개발한다.

1단계 사업은 오는 2025년까지로, 이 기간 21조원을 투입해 4.1GW 규모의 발전단지 준공하는 게 목표다. SK E&S가 올 하반기 96 MW급 발전소를 가장 먼저 착공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단계는 2022년부터 2027년까지 12조7000억원을 들여 2.1GW 규모 발전단지를, 3단계는 24년부터 30년까지 12조3000억원을 들여 2GW 발전단지를 조성한다. 설비 총량은 8.2GW는 서울과 인천시민이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규모다. 풍향·풍속·풍랑 등 기상 상황을 제외하고 단순 설비용량만 비교하면, 1GW는 원자력발전소 1기와 맞먹기 때문에 원전 8개를 대체하는 셈이다. 사업에는 국내 유수의 발전기업과 풍력발전 기자재 업

전남도 신안 앞바다에 2030년까지

세계 최대 규모 해상풍력단지 조성

사업비 48조 원전 8기 규모 전력 생산

기업 400개 참여 12만개 일자리 창출

체가 다수 참여한다.

한국전력공사, 전남개발공사, SK E&S, 한화건설, SM E&C, SF솔라에너지, 원원드파워, 압해풍력발전소, 신안어의풍력발전(주) 등 9개 발전사가 전남도와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에 뛰어들었다. 기자재 업체인 두산중공업(주), 유니슨(주), 효성중공업(주), ㈜씨에스윈드, ㈜휴먼컴퍼티, 현대스틸산업(주), 삼강엔지니어(주), ㈜세아제강, 대한전선(주) 등 9개 기자재 업체는 현재까지 6500억원의 투자 계획을 밝혔다. 1단계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9개 발전사 가운데 한화건설, SK E&S, 압해풍력발전소 등 5개 기업은 발전사업 허가를 이미 받아 착공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민간 사업자들이 앞다퉀 사업에 뛰어들 것은 무엇보다 경제성이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신안을 비롯한 전남 서남해상은 평균 수심이 40m 미만으로 얕다. 풍속도 평균 7.2m/s로 적절해 우수한 해상풍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지역 주력산업인 조선·철강산업과도 연관성이 높아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의 최적지로 꼽힌다. 실제로 전남의 해상풍력 잠재량

은 12.4GW로 분석돼 전국 33.2GW의 37.3%를 차지한다고 전남도는 설명한다. 얕은 수심을 활용해 사업자들은 바다 밑바닥에 하부구조물(기둥 등)을 설치해 발전기를 세운다. 부유식이 아닌 고정식을 취할 수 있어 사업비 절감 효과도 있다. 발전기는 8MW급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기술 발달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다.

2030년 사업이 준공되면 신안 앞바다에는 1024개의 바람개비(발전기)가 들게 된다. 세계 최대 해상 풍력발전단지다. 전남도는 사업대상지 수심, 바람 세기 등 여건을 고려하는 동시에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해상풍력발전산업 생태계가 전남에 뿌리내리도록 해 전남의 미래 먹거리로 삼겠다는 복안이다.

전남도는 해상풍력단지가 조성은 지역을 넘어 국가경제 활성화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2만여 개의 직간접적인 일자리 창출이 예상되고, 터빈, 타워 등 핵심부품 기업 40개사 유치 및 조선, 기계 등 관련 지역기업 410개사 육성으로 글로벌 수준의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가 조성된다는 점에서다.

목포대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생산유발 효과는 93조6000억원, 부가가치유발 효과는 27조8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지역 주민이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이익 공유형 일자리 모델을 실현하는 것도 큰 성과로 꼽는다. 주민들은 협동조합 형태로 사업에 참여해 발전사업 이익을 공유할 뿐 아니라 발전사들의 지역발전기금 조성, 인력뱅크 설립을 통한 지역주민 우선 채용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 전남 신안군 임자2대교에서 열린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48조 투자협약식'에서 풍력발전기 모형을 단상에 꽂는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광주전남사진기자회>

특별기고

요즘처럼 장난감이 흔치 않던 시절, 산골 소년이었다. 내게 종이 바람개비는 재미있는 놀이감이었다.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신나게 달린 바람개비는 더 빠른 속도로 합쳐져 돌아갔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렇게 작은 손에 꼭 쥐고 돌렸던 바람개비가 전기를 만들어 내는 풍력발전기로 멋지게 변신해, 이제는 바다 한가운데 자리한 '해상풍력'이라는 이름으로 지역민에게 새로운 꿈을 심어주고 있다. 정말 감개무량하다.



조석훈
전남도 해상풍력산업과장

기후위기에 처한 지구를 살리기 위해 세계 각국은 탄소배출을 줄이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중 최우선적인 목표가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에너지 대전환이며, 그 열쇠는 해상풍력에 달려있다.

정부에서는 2030년까지 해상풍력을 12GW 규모로 100배 이상 확대해 세계 해상풍력 5대 강국으로 진입한다는 야심찬 포부도 밝혔다. 이 중 자그마치 68%에 달하는 8.2GW가 신안 앞바다에 조성될 계획이어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려는 정부 정책목표는 차치하고, 도대체 정부가 앞장서서 8.2GW 해상풍력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이토록 큰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8.2GW 해상풍력은 사업비 48조원 중 민간투자가 46조원에 달하는 '민간주도, 정부지원' 대표 사업이다. 2030년까지 민간 발전사업자는 사업성과 경제성을 토대로 대규모 민간자금을 투자할 계획이다. 간혹 해상풍력의 설비 이용률이 33%인 점을 들어, 투자 대비 33%만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설비 이용률은 8.2GW 규모로 설계했을 때 2.7GW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뜻이다.

바람개비의 추억

전남 새바람 '해상풍력'으로 승화

발전사업자들은 이미 이런 이용률까지 감안해 투자 대비 경제성을 조사한 후, 사업 참여를 결정할 것이다. 앞으로 정부에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추진 중인 인허가 통합기구가 설립되면, 각 부처에 산재한 각종 절차가 일원화되어 사업 속도가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해상풍력사업이아말로 경제 활성화와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모두 부합하는 그린뉴딜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해상풍력 연관기업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의 국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해상풍력은 2030년까지 177GW 규모로 확대될 예정이다.

전남도에서는 현재 기자재 업종별 산업단지 배치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앞으로 탄탄한 내수물량을 기반으로 연관기업을 집적화하고, R&D 지원 등 기술력을 강화해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을 정복해 나갈 것이다. 향후 2030년에는 세계 굴지의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할 것임을 확신한다.

셋째, 8.2GW 해상풍력사업은 지역주민과 어업인이 발전수익을 함께 나누어 가는 이익공유형 주민참여 상생모델이다. 전남도에서는 계획단계부터 실질적인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운영하며 주민과의 상생에 주력해 왔다. 현재는 해상풍력사업으로 지역주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극대화하고, 수산업과 공존·상생하는 최적의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올 연말 안에 8.2GW 해상풍력사업의 첫 착공이 본격 시작될 계획이다. 지자체 최초 해상풍력산업과장으로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늘 마음 한편을 짓누르지만, 전남 발전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흐름에서도 꼭 가야만 하는 길임은 자명하다. 어려운 일기에 밤잠 설치며 고뇌에 빠지기도 하지만 강한 사명감도 느낀다.

바람, 태양은 영원히 고갈되지 않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이다. 해외자원에 의존하지 않고,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에너지자립의 시대가 머지않았다. 이제 어린 시절 바람개비 장난감 추억이 광활한 바다의 해상풍력으로 거듭나는 희망찬 미래를 꿈꿔본다. 전남이 세계 해상풍력의 중심으로 우뚝 설 날을 기대해 본다.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
각서·운송료·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
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회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본들이 많으나 당시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는 내재산이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010-2860-4700
직통전화 062)521-4109

토지, 건물, 정원수(아파트용) 매매

1. 토지와 아파트용 정원수 포함

순창 금과 방축리 담양 경계 계획관리지역, 전 9,190㎡
소나무 15년생 외 7종 2천여주 아파트 조경수 포함, 광주 간 25분 신설 4차선 국도 근접.
전원주택, 펜션, 다목적 사용자, 포장도로 접 ㎡ 7만원

2. 상가건물

- 광주 북. 오치 4층 대 384㎡ 연 998㎡ 사거리 코너 요지 매 16억8천만원 보 2억, 월 6백6십만원
- 광주 동. 충장로5가 상업지역 도매상 주동로 5층 승강기 유, 대 222㎡ 연 956㎡ 보 8천만원 월 4백만원 가, 매 13억원 전면 18m 접
- 광주 동. 대인동시장 아시장 주동로 코너 점포 8간, 대 238㎡ 연 257.8㎡ 주변 아파트 9천여세대 건축 중, 투자 효과 최상 매 9억9천 보 1천6백 월 2백만원, 상업지역
- 광주 북. 문흥동 3층 상가 대 660㎡ 연 2,000㎡ 상업지역 1층점포 10간 매 51억원 (보 5억5천만원 월 2천2백만원 포함)

3. 전원주택, 가든, 카페 등 용지

- 순창 금과 고례리 광주간 25분 담양 경계 계획관리지역, 대지 1,163㎡(담 포함) 건물 66㎡ 벽돌조 스라브층, 수리사용가, 산 아래 마을 뒷 아미산 바라본 정남 매9천9백만원
- 담양 금성 덕성리 광주간 20분 메타가로수길 약 70m 접, 계획관리지역 전 4,363㎡ (담 포함), 덕진산자락 정남 경관수려 ㎡ 13만원
- 화순 북면 옥리 금호온천 입구 도로접 계획관리지역, 전 531㎡ 매 ㎡ 18만원

국민공인중개사 대표 정중기 ☎ 062-268-8289 광주 북구 두암동 561-5 삼성출플러스 길 건너편 동광주빌딩 내

분할합병공고 (재건자의의의주권재출공고)

주식회사 서울에너지기술(이하 "갑"이라한다)과 주식회사 강산전력(이하 "을"이라한다)는 2021년 4월 15일 각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갑"재산(영입)의 일부인 전기공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을"과 분할합병하고, "갑"은 존속하며, "갑"의 분할된 부분의 권리의무는 "을"이 승계하고, 갑법 제530조의9(5항)에 의거하여 출자(영입)의 경우와 대하여는 연방제임을 부당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으므로, 분할합병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이의가 있는 이에 관계인은 본 공고제 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각사의 주주는 해당사에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에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0일
면허의 종류: 전기공사업(등록번호: 전북-01490)
"갑"(양도인): 주식회사 서울에너지기술
전라북도 진주시 원산구 천장로 235
전주비전대학교 실습동 210동(오자동2가)
대표이사 박미영
"을"(양수인): 주식회사 강산전력
광주광역시 남구 노재로 36, 501호(오대동)
대표이사 박미영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지방자치법 제105조 (제10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영묘에 있는 분묘의 주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 분묘소재지 및 주소: 전남 무안군 일포읍 의산리 1-9 / 종 6기
- 개장 사유: 사유재산권보전
- 개장 방법: - 영묘분묘: 영묘자와 합의 개장
-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위탁 개장
- 개장 후 안치 장소 및 기간: - 안치장소: 중북 영묘군 신원면 옥계동포구 126 대한불교교당사역단
- 공고기간: 최초 공고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 신고 및 연락처: 문의처 (010-2624-7368 대명사)
- 신고 방법: 신고(영묘)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 시에는 해당 분묘의 위치와 영묘인(영묘),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하십시오.
- 기타사항: 개장 공고 후 위의 사항과 관계 없이 공증 중 생모이 발견되는 분묘 중 생모이 불가능하거나 생이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취합니다.

합의와 같이 분묘 개장공고를 합니다.
2021년 4월 20일
공고인: 문태호(010-2624-7368)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9년

光州日報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

광고문의 (062)227-9600

산행안내
4월25일(일)
▲광주KJ산악회 4월25일(일)
남원 지리산 배례봉, 철쭉꽃
산행, 염주체육관 07:00, 동아병원 07:05, 롯데백화점 07:10, 광주역 07:15, 문예후문 07:25, 비엔주차장 07:30
* 다음카페 광주KJ산악회 ☎ 010 7794 6920